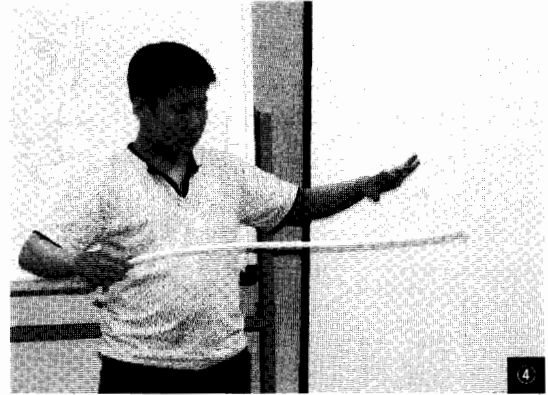


화보

“5월 하늘 만큼이나 밝게 자라길...”





- ①·② 서울·경기지회 어린이 날 행사.
- ③·④ 부산·경남지회 어린이 날 행사.
- ⑤·⑥ 대구·경북지회 어린이 날 행사.
- ⑦ 전남지회 어린이 날 행사에 모인 어린이들.
- ⑧·⑨ 대전·충남지회 어린이 날 행사.
- ⑩·⑪ 충북지회 어린이 날 행사.

또 다른 나의 마음으로의 초대

최 순 일 | 사회사업실 사회복지사

… 미술에 관한 궁금증

미술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미술은 치료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미술이라는 창작 과정에 통해 몰두하는 동안 재미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미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팔 동작만 계속해서 위아래로 10분 동안 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선을 긋는 그 사람만 몰두한다면, 이는 적어도 그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몰두하기 때문에 창조적 에너지가 돋보이는 활동이고 치료적 효과가 있는 작업이 됩니다.

미술을 통해 치료가 된다면, 그것은 과정에 있습니다. 미술이 가지는 창조적 능력이 미술의 치료적 효과를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적 효과를 일으키는 창조성은 미술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 그림을 그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림을 그린다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림에 몰두하게 되면 달라질 뿐입니다. 그냥 그리는 것과 그리는 사람 자신이 몰두해서 그리는 것은 겉보기엔 사소한 차이일지 모르지만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동이 몰두해서 뭔가를 만들었다면, 그 작품 속에는 만든 사람의 생각과 감정, 사고, 느낌들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만약 아픔을 가진 아동이 있다면, 아동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아픔을 표출하면서 스스로를 달랠 수 있습니다.

이때 진행자는 자기 표출과 자기 치유가 안전하게 일어나도록 지지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지지 환경은 아동으로 하여금 뭔가에 신나게 몰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표출이 된다면 아픔은 낫기 시작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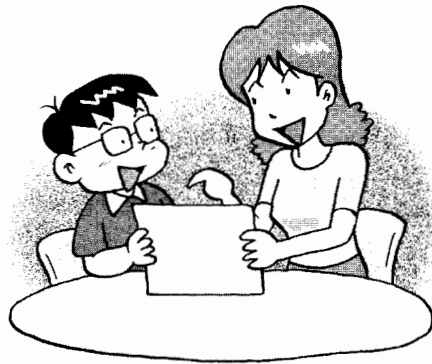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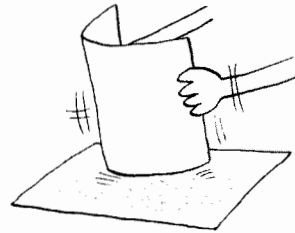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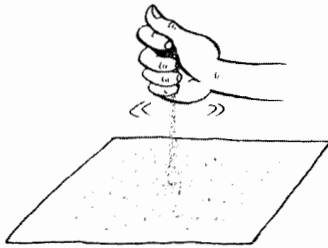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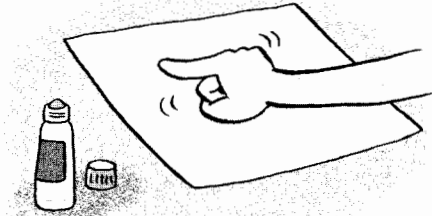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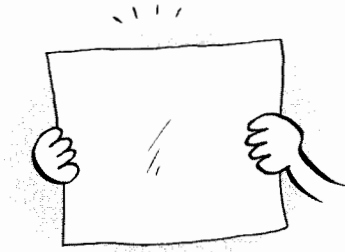
… 그림을 못 그리면 어떻게 하죠?

모임에 참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그림 잘 못 그리는데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린다는 말은, 자신의 생성할 작품에 대한 진행자의 수용과 인정을 바라는 의미입니다. 그림을 못 그리면 어떤가요. 자신이 몰두해 표현하면 그 것으로도 에너지를 갖는 것입니다.

집에서 해보세요

〈풀로 이름쓰고 색모래 뿌리기〉



목적 : 자신의 이름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기회 제공

재료 : 색모래, 물풀, 도화지

순서 :

- ① 4절 도화지를 준비한다.
- ② 풀을 자신의 손가락에 묻히고 도화지에 자기 이름을 쓰게 한다. 옆에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려도 좋다고 말해 준다.
- ③ 풀이 마르기 전에 색모래를 뿌리게 한다. 이때 도화지에 위에 아무렇게나 뿌려도 된

다는 시범을 보여주면 좋다.

- ④ 모래를 준비해둔 도화지 위에 쏟으면 이름이 나타난다.
- ⑤ 아름다운 색모래에 의해 이름이 멋있게 완성된다.
- ⑥ 작업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난 후 느낌과 위치, 마음에 드는지를 함께 이야기 한다.

<참고문헌 : 미술치료 요리책, 미술치료란, 산호성, 최신정신의학>

‘개별 경험을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자’

대정부관계에 대한 세계혈우연맹의 제언(1)

데이비드 페이지 | 캐나다 혈우회

전 세계의 혈우병 환자 중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25%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유전성 출혈질환인 혈우병의 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료비의 지원이 결코 낭비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혈우병 치료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정부이다. 혈우병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포괄적인 치료 등 보다 발전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혈우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 캐나다 혈우회의 데이비트 페이지(David Page)씨가 말하는 대정부 관계에 대한 방법을 3~4회에 걸쳐 알아보도록 하자. <편집자 註>

서론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혈우병 환자들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달성하는데 있어 주저하였다. 그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고 장애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었다. 혈우병 환자에게 있어 요절(젊은 날에 사망에 이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혈우병에 대한 치료가 잘 발달되어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관료에 의하여 혈우병 치료센터의 예산이 삭감되곤 한다. 수준 높은 치료가 위협적으로 되는 것이다.

혈우병 치료의 수준을 높여 혈우병 환자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와 보건당국을 상대하는 것은 세계혈우연맹에 가입한, 국가 회원단체(National Member Organization, NMO)의 역

할이다. 이 소논문의 목적은 혈우병 단체가 정부를 상대할 때 영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의 : 이 소논문에 있는 제안들은 몇몇 나라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자신이 속한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서 어떤 제안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의 관계에 대하여

… 상호 만족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혈우단체와 국가는 혈우병 치료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반자이다. 만일 어떤 단체의 활동이 성공적이었다면 혈우병 환자들은 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고, 이들은 또 건강함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 “윈-윈”게임이 되는 것이다.

혈우단체는 스스로에 대하여 ‘국가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항상 자신의 주장을 기억하라

다음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혈우병의 영역을 확대하고 더 나은 진단제공

- 국가적인 혈우병 치료센터의 건립

- 모든 혈우병 환자들이 응고인자제제에 접근 가능 하도록 함

- 포괄적인 치료의 증진

주장한 내용이 좋은 것이라면 혈우병 환자들은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혈우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게 된다면 혈우병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지엽적인 문제로 인한 혼란을 피해야 한다. 혈우단체가 혼란스럽다면 정부도 마찬가지로 혼란을 느낄 것이다.

… 참을성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접근하라

혈우병 치료에 있어 주요한 발전은 하루밤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급함은 쉽게 낙담하게 한다. 조급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면에서 혈우단체는 고집스러워야 한다. 정부 관리가 볼 때 혈우단체가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결코 그 목표들을 놓치지 않고 장기에 걸쳐서 일을 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 단체를 진지하게

대할 것이고, 유용한 파트너라고 생각할 것이다.

… 혼자가 아님을 명심하라

혈우단체내의 규모가 작은 자원봉사 그룹이라면 특히, 목표를 향한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는 그룹에서라면 혼자라는 느낌을 느끼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단체의 회원들과 그들의 가족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다.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힘을 빌려줄 것이다. 당신은 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혈우병 영역에서 일하는 보건 전문가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들은 환자들의 치료가 증진되어야 한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사회적인 조직이나 종교적인 조직들이 도움을 줄 것이다.

만일 당신이 혼자가 아닌 것을 정부의 관리가 알게 된다면 당신의 요청에 대해 보다 경청할 것이다.

… 좋은 일이 생기면 그에 대해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비슷하다. 문제가 생기면 화를 내고 비판적이게 되지만, 일이 잘 해결되면 긴장을 풀고 수수방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잊곤 한다. 정부의 관료가 좋은 일을 한다면 그러한 업적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혈우단체는 문제를 불평하는 조직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조직으로 인정될 것이다.

… 결코 포기하지 말라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시기가 변하고, 정부가 변하고 그리고 한 해가 지나면 불가능했던 것이 현실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혈우병 환자들은 그들의 혈우단체가 그들의 관심사항을 위해 지

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써 희망을 갖게 된다.

당신의 사례를 준비하라

혈우단체가 그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정부 관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보통 단 한번 일 경우가 많다. 만일 잘 준비되지 않고 설득력이 없다면 다음의 기회를 얻기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사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시간을 벌어서

“우리 혈우회가 응고인자제제에 대해 보다 폭넓은 접근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정부를 만날 때 우리는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혈우병으로 진단을 받고 또 그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개인적인 이익과 사회적인 이익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요구안을 제출했을 때 그 요구안은 신중하게 다뤄졌습니다. 우리는 요구안을 만들기 위해 업무 외 시간까지 들어가며 일했던 것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혈우병 환자의 치료 증진이 주는 이득을 증명하는 것은 혈우병을 가지고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출혈질환에 대하여 아주 조금 밖에 모르는 정부의 관료를 위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정부는 보건체계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 어떤 사안은 전체 인구 중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혈우병에 대한 치료를 증진시키는 것이 단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거를 만드는 것은 혈우 단체의 의무이다.

… 치료의 증진이 국가적 이득이라는 근거자료
혈우병 치료의 증진이 이루어지면 국가에 많은 이득을 줄 것이다. 다음의 내용은 그 이득중의 일부이다.

사회적인 이득

- 특히 어린이들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피할 수 있다.

- 좋은 치료를 받는 혈우병 환자들 중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다. 생활능력이 없는 혈우병 환자를 사회가 떠안아야 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적절한 치료를 받은 혈우병 환자는 건강하게 성장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 보다 건강하고 무능력함이 줄어들므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생산력이 향상된다.

의학적인 이득

- 환자 수와 사망률이 줄어든다.
- 혈우병 환자의 진단에 필요한 기술들이 다른 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적절한 진단과 치료로 인하여 혈우병 환자들이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가정요법이나 외래처방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 환자와 그의 가족, 가정요법, 외래처방 등 여러 학문들이 포함된 ‘포괄적인 관리’가 개발이 되면 다른 질환의 치료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국가적인 혈우병 치료센터를 통해 습득된

혈우병 치료의 전문적인 의학기술의 개발은 다른 혈액질환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 각 국가의 혈우병 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은 세계혈우연맹을 통해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연결되어 가치있는 정보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잘 발달된 혈우병 치료 체계는 귀중한 자원이 현명하게 사용되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쓸데없이 소모되지 않게 한다.

- 혈우병 분야에 있어 보건 당국, 의사와 환자 사이에 훌륭하게 형성된 동반자 관계는 보건 체계의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개념이다.

혈액안전의 이득

- 헌혈자에 대한 심사, 검사 방법의 향상을 통한 혈액과 혈우병 환자들을 위한 혈액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헌혈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 정부와 혈우단체, 혈우병 치료 의료진 그리고 세계혈우연맹의 연결을 통해 응고인자제제를 구입할 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유효한 자료를 제시하라

정부 당국자는 정책결정을 하기 위하여 유효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혈우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자료는 반드시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혈우단체는 신용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혈우연맹은 당신의 단체가 이러한 경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글로벌 서베이'를 제공하고 있다. 자국에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록된 혈우병 A, B 환자 및 폰 빌레브란트

병 환자의 수

- 등록된 환자들의 평균 생존률(평균 수명)
- 추정되는 혈우병 A, B 환자 및 폰 빌레브란트 병 환자의 수

트 병 환자의 수

- HIV/HCV에 감염된 환자의 수
- 지난 12개월(1년) 이내에 사망한 환자의 수
- 8인자의 현재 사용량 (8인자 IU/1인당/1년)
- 요구되는 치료의 수준(8인자 IU/1인당/1년)
- 혈우병 치료센터의 수와 혈우병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 현재의 의학적 자원

만일 혈우병 치료센터가 환자들에게 대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혈우병 치료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혈우병 치료센터와 함께 일하면서 정부에게 가능한 한 완벽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책임지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 튼튼한 논거를 제공하라

혈우병 치료의 향상이 당신의 국가에 이득을 줄 것이라는 방침과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기틀 위에서 당신의 경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튼튼한 논거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논거를 말하고 그들의 반응을 살피고 논리상의 허점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라.

정부 관료를 만날 때 약한 논지의 긴 목록 보다는 몇 가지의 강한 논거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명심하여야 할 것은 정부가 가진 문제에 대하여 당신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나 그것이 진짜 문제임을 먼저 증명하여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햇살 가득한 오월.

너의 탄생은 우리 가족의 기쁨과 희망이었지.

뽀얀 피부에 탐스런 넌 신생아실에서 단연 으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4.8kg의 신생아는 너 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엄마는 널 재왕절개 수술로 낳을 수밖에 없었어. 남들보다 회복이 느려서 고생은 났지만 면회시간만 되면 제일 먼저 뛰어가서 우리 아가를 보고 오고는 했단다.(후후, 얼마나 행복했던지,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이었어.)

퇴원하는 날 할머니께서 널 맞을 준비를 하시고, 우리 아가 입을 예쁜 옷을 사오셨어. 그 옷을 입고 집으로의 첫 외출을 했었지. 온 가족들은 너의 귀가를 환영해 주었어. 9년 만에 남동생을 본 누나는 약간 썸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

이렇게 우리 가족은 셋이 아닌 넷이 외출도 하고,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었지.

그러저럭 백일이 지나고 보행기도 쭉쭉 밀고 온 집안을 참견했지. 그러다가 6개월 쯤 된 어느 날 네 가슴에서 밤톨만한 혹을 발견한 거야. 이상하다 싶어 소아과에 갔었거든. 선생님 말씀이 “그냥 혈종이니 걱정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더 커지는 거야. 소견서를 가지고 백병원 소아과로 갔지.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니 피검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 팔에서 피를 뽑고 담담하게 집으로 왔지.

집으로 온 너는 엄마하고 자꾸 웅알웅알 눈을 맞추려고 애쓰더라고. 말을 못하니 엄마에게 의

사를 전달하려는 거였지. 이상하다 싶어 옷을 벗겨봤어. 그랬더니 이게 웬 일? 주사 맞았던 팔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있는 거야.

부들부들 심장이 뛰어서 어떻게 병원엘 다시 갔는지도 모르겠다. 새벽 두시였어 낮에 널 진찰하신 과장님은 당연히 계시지 않고 인턴 선생님이 널 보더니 급하게 움직이더라고. 과장님한테 전화도 걸고, 우선 얼음찜질을 하면서 과장님을 기다렸지. 팔은 더 멍멍해지는데 ‘어쩔 참을성도 강해라 우리 아기’ 많이 아플텐데 울지도 않고.

드디어 과장님이 오셨어. 하지만 ‘일단 의심이 되는 환자면 지혈을 시켜서 집으로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질 겨를도 없이 “빨리 지정병원인 경희대 응급실로 가라”고 하는 거야. 엠블런스를 타고 가는 길이 그렇게 멀 수가 없었어. “하느님,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엄마는 네가 곧 죽는 줄만 알았다. 아빠는 지방 출장 중이셨는데 벌써 와 계셨지.

신속하게 검사가 시작되고, 먼저 입원을 했지. 하루, 이틀 서서히 부기가 빠지기 시작하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단다.

검사 결과가 혈우병으로 나온 거야.

무슨 병인지 잘 몰랐던 엄마는 “어떤 병인데요? 나올 수 없는 병인가요? 외국가도 못 고치나요?”라고 물어보았지. 선생님의 답은 역시 “불치병입니다. 지혈이 안되는 병이니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하시면서 혈우재단을 소개하

셨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하느님 왜 늦게 아들을 주시더니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저 어린것이 무슨 죄가 있길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팔에 부기가 빠지면 서서히 가라앉자 새까맣게 멍이 들었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집으로 와서 엄마는 모든 사생활을 포기했다. 오로지 스물네시간을 너와 꼭 붙어서 살 수밖에 없었지. 너를 위해서 온 집안을 카펫과 안전벽으로 고치고, 문지방은 담요로 덮어놓았지. 네 뒤를 졸졸 따라 다니다가 화장실을 갈라치면 들쳐업고 갈 수밖에 없었어. 업은 아기도 내려놓고 가는 게 화장실인데 말이야. 그거 너는 모르지? 그것만은 다행이다. 너 기억이 없을 테니까. 후후.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랬어도 머리에 혹을 달고 살았고, 엉덩이는 늘 짝궁덩이, 온 몸은 멍으로 푹하면 발목관절이 부어 아침, 저녁으로 주사 맞으러 다녔으니 경희대 응급실과 혈우재단은 내 집처럼, 의료진들은 가족처럼 되어버렸지. 커가면서 무릎이며 어깨며 온몸이 안 다치는데가 없었던단다. 관절, 근육, 몸 전체 어디 하나 소홀할 수가 없었지.

머리라도 부딪히면 ‘뇌출혈이면 어찌지?’, 배가 아프다고 울면 ‘장출혈이면 어찌지?’ 라고 걱정했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는 차라리 보이는 곳에서의 출혈은 차리리 나왔어.

우리 아기는 다행히 주사를 잘 맞았어.

그렇기에 팔자라고 하나봐. 더 어릴적엔 누구든 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겠지. 좀 자라서 7살이 되니 그러더라고.

“엄마 왜 난 주사 맞고 살아야 해? 다른 애들은 안맞는데?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는 “엄마, 혈관 강해지는 약 언제 나와? 나오면 나 치료해 줄꺼지?”

‘그럼, 그걸 말이라고? 치료 방법이 나오기만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줄꺼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커주기만 해 알았지?’ 이니 어떻게 어린 입에서… 가슴이 메어졌어.

민우야.

세상 사람은 다 똑같지는 않단다. 물론 남들보다 힘들게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만, 누구든지 살만한 가치는 있는 것이라. 돌아보면 더 어려운 몸을 가지고도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남을 도우며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 그리고 너는 다행이지, 요즘은 약이 좋으니 말이야. 예전 형들은 주사도 없어서 아파하는 것을 참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데. 그러니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지. 유치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던 네가 벌써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어느덧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으니 말이야.

입학하던 날 발목을 다쳐서 집으로 왔던 생각 나니?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수도 없이 엄마가 달려가서 주사를 놓곤 했는데, 지금은 양호실에 약도 비치해 놓고, 맞아야 된다 안된다를 네가 결정하니 엄마는 이제 하산해도 될 것 같다. 후후.

힘들게 키운 만큼 왜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지 모르겠다.

이렇게라도 우리 민우하고 끝까지 살면 좋겠다마는 사람은 언제나 이별도 함께 한단다. 언젠가는 홀로서기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사도 배워야 하고(형들처럼 말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상에는 너처럼 살아가는 형도 많고, 동생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야.

형들 말 잘 듣고, 세상사는 방법도 배우고, 또 동생들한테 배운 것 나눠주고, 형제처럼 지내길 바란다.

너도 느낄꺼야. 우리 가족이 널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그리고 민우 때문에 축

쳐졌던 아빠의 어깨가 요즘 많이 올라간 것 너는 봤니? 누나는 고3이잖아. 안쓰럽지? 많이 이해해 줘. 민우가.

고맙다.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구나.

오늘 따라 학교에 간 네가 왜 이렇게 기다려 지는지 모르겠다.

어쩔 수 없나봐. '엄마! 오늘도 일등 했어요.'

그 말이 또 듣고 싶어서 일깨다.

5월의 장미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덮었구나.

민우도 5월의 장미처럼 정열적인 삶과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11

❖ 62호 정답 및 당첨자 ❖

항상 코험지 원고를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작성하는 기사가 퍼즐 맞추기 정답자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상품을 전해드리기 위해 서입니다. 이런 마음이 통했는지 지난 호 퀴즈에 모두 열 일곱분이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5번 문제의 정답은 '공명정대'입니다. '언행이 밝고 바르며 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공명정대라고 써 주셨습니다. '공명정대'는 공명정대하디의 어근으로 '마음이 공명하며,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이 바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오답으로 처리하여야겠지만 '바르다'라는 점에서 통한다고 생각되어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벌채'와 '벌목'도 의미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정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정답자는 모두 열 다섯분입니다. 2001년 코험지에 퍼즐 맞추기가 생긴 이후에 최고의 성적인 것 같습니다.

'코험'지를 편집하면서 가장 뿌듯할 때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코험지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는 엽서를 읽을 때입니다.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글-여러분의 생활이 그대로 담겨 있는-을 읽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생각, 어려움, 기쁨 등을 혈우가족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혈우가족의 진솔한 글을 기대만 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 때 남도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럴 때에야 진정한 '피로.맺은 친구'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글을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글을 쓰시기 어렵다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를 보내주시거나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정답자 : 김동우(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김명선(인천시 강화군), 남경훈(서울시 서대문구 북이현동), 남용우(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박경목(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박상혁(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박세욱(전남 해남군 화산면), 소해득(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송선희(전북 익산시 망성면), 양정욱(전북 익산시 영등동), 오대은(광주시 서구 상무동), 오충영(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이병길(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이슬비(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이윤경(경남 함양군 서상면), 정성훈(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정순화(경남 창원시 사파동), 조승현(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진민영(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최영달(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추동균(광주시 북구 오치동) - 가나다 順

어	버	이	날			사	임	당
	드		개	미	귀	신		면
	나	비		인		도	기	
고	무		호	박			세	자
국		마		명	색		등	
원	심	력			동		등	걸
	기		고			인		개
생	일		적	수	공	권		그
	전	망	대		책		산	림

퍼즐 맞추기 ...

‘코헬’ 지에 동봉한 엽서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천하여 선물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에 전하고 싶었던 말, 생각나는 이야기 등을 보내주시면 ‘코헬’ 지에 게재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7월 5일까지 재단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시오.

<편집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가로 문제

- 북한의 개성에 있는 폭포로 북한 천연기념물 제388호. 높이가 37m, 너비 1.5m로 송도삼절(松都三絶)의 하나이며 금강산의 구름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함께 한국 3대 명폭포로 꼽힌다.
- 숨을 얇게 두어 누빈 이불.
- 객차나 화차 따위를 끌고 달리는 데 사용되는 동력 장치를 갖춘 철도 차량.
-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 도장방. 또는 부부의 침실. 안방.
- 혈우병 환자는 치과치료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칫솔이나 ○○을 이용하여 치아를 깨끗이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치아 청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실.
- 방고래 · 가마 · 솔 등에 불을 때는 구멍.
- 목의 통증과 함께 고열(高熱)이 나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돌으며, 살갗이 빨갛게 되는 전염병의 한 가지. 어린이에게 많음. 양독(陽毒).
-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을 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람.
- (폭풍우를 만나거나 하여) 부서지거나 뒤집히거나 좌초한 배.
- (병적으로) 갑자기 몸에 열이 나면서 오슬오슬 추운 증세.
- 오누이.
- 모기를 막기 위해 치는 장막. 문장(蚊帳).
- 아홉 마리의 소 가운데 박힌 하나의 털이란 뜻으로 '씩 많은 가운데 섞인 아주 적은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남자는 짐을 등에 지고, 여자는 짐을 머리에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을 이르는 말.(원래는 '여'로 써야 하나 세로 16번 때문에 '녀'라고 써도 됩니다.)

... 세로 문제

- 판판하고 둥글게 다듬은 돌 위에 둥글고 판판한 돌을 세로로 세워 엮어, 마소가 끌어 돌려서 곡식을 찧거나 뺨는 큰 매향. 연자 매향.
- 하던 일을 중도에 그만두어 버림. '실패' 보다 더 안좋은 말입니다.
- 여러 차례. 수차(數次).
- 열은 열로써 다스린다는 뜻으로 힘에는 힘으로, 또는 강한 것에 강한 것으로 상대함을 이르는 말.
- 빠와 빠가 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부분.
- 임금이 거처하는 집의 도면. 대표적인 이것으로 북궐도가 있다.
- 한국의 작곡가 · 바이올리니스트로 본명은 영후(永厚). '봉선화', '성불사의 밤' 등을 작곡.
-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 착하고 어진 사람들.
-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작용, 또는 그런 작용의 근원이 되는 것
- 미카엘 엔데(Michael Ende)의 동화소설. '시간도둑들과 도둑맞은 시간들을 인간에게 찾아주는 꼬마에 관한 야릇한 이야기'라는 부제가 있으며, 7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어 김만준이 동명의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 만아들.

“혈우인을 위한 자조관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합니다”



혈우병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바르게 관리하는 지식과 능력을 전문인을 통해 습득하고 선후배 간의 좋은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최상의 건강관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자조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혈우가족을 모집합니다.

- 참여 대상자 : 19세 - 40세 성인
- 프로그램 운영 일시 : 2004년 6월 30일(수) - 7월 28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프로그램 운영 장소 : 혈우재단 의원 지하1층 회의실
-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 2004년 6월 22일까지
 - 2) 접수처 : 혈우재단 의원 정경선 주임간호사
 - 3) 전화번호 : 3473-6100(104번)

주관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혈우재단 의원

